

찬송가 28장

찬송 반주
QR 스캔 →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반주
QR 스캔 →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 가면 안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 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6 설 명절 가정예배서

목	도	다	같	이
사도	신경	다	같	이
찬	송 28장	다	같
기	도	가	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설을 맞아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마가복음 2:1-5 다 같 이

-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말	씀 “지붕을 뚫는 믿음”	인	도
기	도	인	도
찬	송 552장	다	같
주	기	도	문	다

“지붕을 뚫는 믿음”

명절은 그리운 얼굴들이 모이는 기쁨의 시간이자, 우리 가정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2026년,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께로 '직진'하는 돌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 병자를 메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1. 함께 짊어지는 사랑

중풍 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침상을 함께 짊어졌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영적으로 지쳐있다면, 다른 가족들이 그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2.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과격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 앞에 멈춰 서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새 길을 만드는 거룩한 모험입니다. 우리 가정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만 가면 산다"는 소망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그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합심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중풍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듯,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